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용식

구례군, 전남도 투자유치 종합평가 '장려상' 수상

친환경 식품 가공 분야 유치 성과 돋보여

구례군은 지난 18일 전남도 주최로 개최한 '2017년 투자유치 한마당 행사'에서 2017년 전남도 투자유치대상 종합평가 우수기관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협약 실적, 투자유치 여건조사, 투자기업 사후관리 등 올 한해 전반적인 투자유치 활동사항에 대해 평가했으며, 구례군은 조성 중인 구례자연드림

파크 2단지에 iCOOP생협 친환경 식품 가공 분야 유치 실적을 높게 인정받아 장려상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8개 시군의 투자유치 우수 시군과 기업 간 투자 협약식을 함께 진행하였으며, 구례군은 아이클농산(대표 김기주)과 콩나물 재배 및 가공을 위한 50여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서기동 구례군수는 "서로 감동

을 주는 밀착형 기업유치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투자유치 한마당 행사는 투자유치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라남도 주관으로 22개 시군과 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우수 기관과 기업인 등을 시상하고 다양한 투자정보와 성공사례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녹차수도 보성, '차산업 발전계획' 본격 추진

차의 재배·가공·체험·관광 아우르는 6차산업 활성화



차가 새로운 음료 트렌드로 각광을 받으며 다시 보배로운 천년의 땅 보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보성군은 녹차산업의 부흥을 위해 '보성군 차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보성녹차는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등록 제1호로 지역 향토자원인 녹차를 특화하여 재배, 생산, 가공, 체험, 판매, 관광을 아우르는 6차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차밭의 지속적인 관리와 우수한 보성녹차 생산촉진을 위하여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 및 차나무 경관보조금 지원, 차 가공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성녹차 가공유통센터 HACCP 시설구축, 에듀마케팅을 통한 차의 대중화를 위한 이야기기 있는 다원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차 체험프로그램 감시양성을 통한 다양한 차체험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

영하며 단순 가공·판매에서 벗어나 관광객 유입으로 차문화 확산 및 6차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커피문화의 확산과 다양한 대체음료의 출사로 침체된 국내 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과 기능성을 더한 녹차리페, 급녹차, 녹차소금, 녹차유, 녹차비누, 녹차음료 베이스 등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차 제품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차 재배·가공·보관 시설에 필요한 차 체험기계, 발효차 시들리기 작업장, 차광막 등 차생산 현대화시설 확대 등 산업화 기반을 꾸준히 조성해 농가 소득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무농약 95, 유기농 220)을 받은 차를 315ha에 걸쳐 재배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 9년 연속 국제유기인증 획득과 군수품질인증제 실시 등 엄격한 품질관리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보성 녹차의 품질 및 안전성을 인정받으며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함평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내일까지 마무리점검

함평군은 22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마무리점검한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계절별 운영으로 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적발되면 경미한 경우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에 처해지고, 무단방류 등 고의적인 경우는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사업장 운영

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환 기자

장성군, 대기오염측정망 본격 가동

장성읍사무소 옥상에 측정망 설치...내달부터 측정 시작

장성군이 최근 장성읍사무소 옥상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완료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시대기측정망은 이황산화물(SO2),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10, PM2.5), 오존(O3)과 풍향, 풍속, 온도, 습도를 24시간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측정 결과는 자동감시체계(TMS)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국가 대기오염 정보관리시스템(NAMIS)에 전송된 후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 홈페이지(www.airkorea.or.kr)를 통해 공개된다.

이번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은 장성군이 국비 9천7백여만원을 확보해 총 2억여원의 사업비를 들

여 추진했다. 공기 중 유해 미세먼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측정망이 설치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주민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장성은 수십 년 전부터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역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영광군, 농기계안전교육 성료

1,500명 대상 안전교육과 소통교육 병행



영광군은 지난 13일, 15일, 18일 3일 동안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실시한 농기계 안전교육과, 농업인 소통교육이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고 밝혔다.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인과의 소통을 위하여 1,5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500명씩 3일간 일정으로 교육계획을 수

립하고 전국 최초로, 전국 최대 인원을 한자리에 모시고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교육기간 내내 영하의 날씨와 4시간에 가까운 긴 교육 시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높은 교육 열기로 매일 500여 명이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교육 첫날 농업인 500여명이 각자 손 편지를 들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다짐 결의"를 시작으로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진 강사의 농기계 안전교육과 자기경쟁연구소 대표인 이경희 강사의 농업인 소통교육을 교육 일정별로 병행 실시하여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3일 연속 교육에 참여한 한 농업인은 "자칫 농기계안전교육만 실시하면 교육내용이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데 농업인 소통교육을 병행하니 정말 좋았다"라며 딱히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농민에게 이런 교육을 자주 실시해 줄 것을 부탁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지속적인 투자와 질 높은 서비스로 2017년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전국 TOP 10'에 선정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발돋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후농기계 교체구입과 신기종 농기계 추가 구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농기계 안전사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농기계 안전 교육을 잘 받으시고 농기계 안전사용 수칙을 준수하여 농업인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고흥군, 제2회 설화 이야기 자랑대회 성료



고흥군은 19일 분청문화박물관 강당에서 100여 명의 공무원과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허벌라게 재미있는 고흥 설화 이야기 자랑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우리의 삶과 문화가 오롯이 담긴 설화를 보존하고 함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흥군의 설화

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지난 16일 예선전 경연자 8명 중 본선 진출자 7명을 선발하여 경연을 펼쳤다.

식전 축하공연으로 고흥 설화를 재창작한 설화 인형극 공연이 끝난 후 진행된 설화이야기 자랑대회 본 행사에서는 마당극 배우로 일명 '말바우 아이'로 불리는 지정남 씨의 매끄러운 사회로 7명의 경연자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었다.

점점 사투리가 터부시되고, 사라져가는 현대에 고흥지역의 이야기를 고흥지역 사투리로 풀어내는 경연이 열려 더욱더 의미가 있었으며, 경연자를 뿐만 아니라 참석한 관람객들도 이야기에 빠져들어 박수치

며 즐기는 시간이 되었다.

경연 결과 '허벌라게 큰 상'(대상급)은 '미복산 기암괴석에 숨겨진 이야기'라는 주제로 사투리를 맛깔나게 선보인 포두면의 송희덕 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본선에 진출한 모든 참가자에게는 '별짜게 큰 상'(금상급), '워따매 상'(은상급), '겁나게 웃긴 상'(인기상급), '쫄가 거시기 상'(특별상급) 등 이름에 걸맞은 재미있는 상이 수여되었다.

이야기 자랑대회를 관람했던 한 군민은 "오래도록 고흥에 살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는 줄 모르고 살았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자주 해서, 고흥군민으로서 고흥지역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광주형일자리

광주형일자리란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

원·하청관계 개혁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광역시 GWANGJU CITY